

기혼여성의 성과 결혼만족도

Sexuality and Marital Satisfaction of Married Women

아동가족 상담연구소
상담연구원 이 경 옥
충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복지학과
교 수 김 영 희

Child & Family Counseling Research Center
Counselor : Lee, Kyeong Ok
Child-Welfare Study, Dept. of Home Economic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 Kim, Yeong Hee

◀ 목 차 ▶

- | | |
|------------|------------|
| I. 서 론 | IV. 연구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explored how sexual and marital satisfaction were influenced by various sexual variables such as sexual communication, sexual function of wives and husbands, sexual compatibility, attitude toward sex, knowledge of sex, times of sexual relation, duration of a sexual intercourse and frequency of orgasm. Subject of this study was 221 married women aged between 20 and 49 years old. And, SPSSWIN and LISREL(Linear Structural Relationship) VIII program was applied to analyze data. The proposed theoretical model was supported by the data and fitted adequately. As the result, there was a statistically effect of sexual communication, sexual compatibility and times of sexual relations, intermediated by sexual satisfaction, on marital satisfaction.

주제어(Key Words): 기혼여성(married women), 성만족(sexual satisfaction), 결혼만족(marital satisfaction)

Corresponding Author: Yeong-Hee Kim, Child-Welfare Study, Dept. of Home Economic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San 48 Gaeshin-dong Heungduk-gu Chungbuk 361-763, Korea Tel: 82-43-261-3147 Fax: 82-43-260-2793 E-mail: enjoy@chungbuk.ac.kr

I.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성(sexuality)은 결혼생활의 일부로서, 부부는 성을 통해 신체적 만족뿐만이 아니라 정서적 만족을 함께 얻는다. 특히 부부중심의 현대사회에서는 성이 상호 애정과 신뢰를 나누는 수단이 되어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결속력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김임영, 2002). 이에 대해 학자들은 결혼만족에서 성만족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성만족이 결혼만족도를 높이는데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함으로써 결혼생활에서 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Hurlbert, Apt, & Rabe, 1993; Marokoff & Gilliland, 1993).

그러나 부부에 따라 결혼생활에서 성이 즐거움과 애정을 더해주기 보다는 갈등을 일으키는 주 요인이 되기도 한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01년 우리나라 이혼부부들의 이혼사유 중에서 부부 불화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74.0%), 재판상 이혼 사유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42.1%에 달했다(통계청, 2002). 이러한 부부갈등은 성생활의 불만족과 관련이 있으며(이영실, 1989) 특히 배우자의 부정에서 비롯된 부부갈등은 성에서 오는 불만족과 관계가 깊은 것으로 밝혀진 바와 같이(Bell, 1979), 부부의 성생활 불만족은 이혼으로까지 이어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처럼 성적 갈등으로 인한 이혼율이 최근에 점점 증가하면서, 이혼하지 않은 부부가 경험하는 성만족과 결혼만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성과 결혼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연구가 제기되고 있다(Young, Denny, Young, & Luquis, 2000).

부부의 성생활은 남녀의 상호관계를 통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성 연구는 대부분 남성에게 편중되어 왔다. 그러나 여성도 성반응을 가지고 있으며(Kinsey, 1953) 여러 면에서 남성의 성과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이 선행연구를 통해 드러나게 되면서 기혼여성의 성과 성만족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Cox, 1990; Whipple, 2002).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성만족에 관한 변인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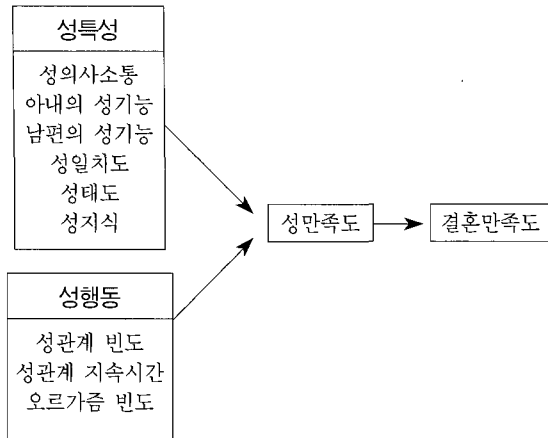
성관계의 상호작용 요인인 성의사소통, 성일치도(Byers & Demmons, 1999; Hurlbert, Apt, Hurlbert, & Pierce, 2000), 성적 신념 요인인 성태도, 성지식(김요완, 2000; Rosenzweig & Dailey, 1989), 기능적 요인인 성기능(Masters & Johnson, 1970; Young et al., 2000) 등 성 특성에 관한 변인과 성행동 요인인 성관계 빈도, 성관계 시간, 오르가즘의 빈도(Darling, Davidson, & Cox, 1991; Darling, Davidson, & Jennings, 1991; Waterman & Chiau, 1982), 환경적 요인인 직업, 소득수준, 학력(장순복, 강희선, 김숙남, 1998; 김임영, 2002; Greenblat, 1983) 등이 있다. 이들 요인은 각각 부부의 성만족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밝혀졌으나, 기혼여성의 성만족도와 결혼만족도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는 밝혀져 있지 않으며, 이러한 요인이 한 모델 안에서 비교 분석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Snyder(1979)는 여러 연구에서 환경요인이 다른 요인의 영향력에 비해 점차 적어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추세에 영향을 받아 근래에는 성만족도나 결혼만족도의 변인에 관한 연구에서 개인의 신념과 상호작용 요인을 주로 다루고 있다. 그러므로 성관계 상호작용 요인, 성적 신념 요인, 기능적 요인 등의 성 특성과 성행동 요인이 성만족도와 결혼만족도에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밝히는 것이 기혼여성의 성을 이해하는데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혼여성의 성 특성과 성행동 요인이 성만족도를 거쳐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성적 불만족에서 비롯되는 부부갈등을 최소화하는 방법과 조화로운 성생활과 결혼생활을 영위하는 방법을 모색하여, 부부 성교육과 부부상담 현장에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모형

선행연구를 근거로 하여 <그림 1>과 같은 이론적 연구모형을 제시하였으며, 이 모형은 기혼여성의 성 특성과 성행동이 성만족도를 통하여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적 관계를 포함하고 있다.



<그림 1> 이론적 연구모델

II. 이론적 배경

1. 기혼여성의 성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성적인 존재로 태어난다. 성은 문화적 배경에 근거하여 규정되며, 개인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생리·심리·사회적 특성 중의 하나이다. 성은 인간의 기본욕구로 성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신체, 정신, 사회적 건강상태의 평형이 깨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나 인간의 삶에 깊이 연관되어 있는 성의 가치와 기준은 그 동안 남성과 여성에게 달리 적용되어 왔다. 여성이 출산의 목적 이외에 성을 즐기는 것은 부정한 행위로 취급받아 왔고, 반면에 남성은 자유롭게 성적 쾌락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여겨져 왔다. 이러한 성에 대한 이중적 기준은 결혼생활에서 여성의 성을 억압하는 기제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여성도 성반응을 가지고 있으며(Kinsey, 1953) 여러 면에서 남성의 성과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이 선행연구를 통해 드러나게 되었다(Cox, 1990; Whipple, 2002).

여성의 성반응은 신체적 요인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며 분위기나 정서적 측면이 강하게 작용하고, 성적인 감각을 느끼는 방식이 남성과 달라 흥분에 이르는 신체적 준비가 늦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부부가 성적 갈등을 일으킬 여지가 있다고 한다(Kaplan, 1979). 또한 남성은 성관계의 쾌락에 더 관심을 가지고 감정적인 유대를 피하지만 여성은 성관계 자체보다는 그것을 통한 정서적 친밀감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여성이 성적으로 만족하는 방식이 남성과 다르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서선영, 2001; Cox, 1990; Whipple, 2002).

이와 같이 기혼여성의 성 특성은 남성과 달리 상호관계적 측면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혼여성의 성 특성에 대한 하위 요인으로 성적 신념요인(성지식, 성태도)이나 기능적 요인(성기능) 뿐만이 아니라 성적 상호관계 요인인성의사소통과 성일치도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2. 성 특성과 성만족도

1)성의사소통과 성만족도

여러 연구에서 성만족과성의사소통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Byers & Demmons, 1999; Ferroni & Taffee, 1997; Masters & Johnson, 1966). 연구자들은 성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함으로써 성적인 문제를 줄일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자신의 욕구를 명확하게 표현할수록 보다 긍정적인 부부관계가 형성되며 성만족도는 증가된다고 하였다(Byers & Demmons, 1999).

그러나 많은 부부들이 거절의 두려움과 수치심 때문에 성에 대한 감정과 성 체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못하여 성적 갈등을 겪거나 성적인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조사에 의하면(Petersen, Kretchmer, Nellis, Lever, & Hertz, 1983) 남성들의 28%와 여성들의 2/3가 오르가즘을 느낀 것처럼 가장한다고 한다. 통계적으로 오르가즘을 위장하는 비율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높다. 어떤 여성은 상대방으로부터의 자극이 자신에게 고통스러울 때도 일부러 오르가즘을 느낀 척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처럼 성에 대한 느낌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속임수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만족한 관계를 지속시켜 성생활을 악화시킬

뿐이다(윤가현, 1990).

일상생활에서의 대화기술과 특히 성에 관한 대화 능력은 부부의 친밀함과 유대관계를 촉진시키며, 서로가 협조적으로 되어 상대방에 대한 만족감이 증가하고 성만족도도 커진다(Cupach & Metts, 1991). 또한 배우자와 함께 자신의 성욕, 성적 선호, 두려움, 성적 기준 등을 이야기함에 따라 이러한 정보들이 성만족을 증진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다(Cupach & Cornstock, 1990). 따라서 부부는 성적인 선호에 대해 자기개방을 하는데 초점을 둔 대화훈련을 통해 성적 문제를 줄이고 성적인 만족감을 증진시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Byers & Demmons, 1999).

2) 성기능과 성만족도

성기능이란 성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성적 능력을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DSM-IV의 성기능 장애 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성욕, 성동기를 포함하여 성반응 단계에서 신체적 정서적으로 적절한 반응을 경험할 수 있는 기능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성기능은 성행위를 수행하는데 기본적인 요소로서, 성기능에 장애가 발생하면 만족스런 성생활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등 성기능은 전반적인 성만족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Young et al., 2000). 성기능 장애로 인한 고통은 성생활은 물론 다른 생활의 전반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데, 성기능 장애가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신체적 원인과 심리적인 원인으로 나눌 수 있다(권석만, 김지훈, 2000). 그러나 대부분 성기능 장애를 호소하는 사람들의 90%가 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성기능 장애가 개인적 병리보다는 '관계의 문제'에 원인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Masters & Johnson, 1970).

성기능의 한 측면인 여성의 성욕은 정서적인 평온함, 심리적 안정(Apt, Hurlbert, Pierce, & White, 1996)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성욕이 낮은 여성들은 생활과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해 자신의 성욕을 억제하는 경향이 있다(Hurlbert, 1993). 성욕은 성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 되는데, 성적 표현에 대해 지속적으로 무관심하거나 성행위를

하고자 하는 욕구가 거의 없을 경우 성기능 장애의 하나인 성적 욕구장애로 분류한다.

성관계를 하고자 하는 동기와 성욕은 성관계를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인간의 성반응 주기와는 구별이 된다는 주장이 있다(Hurlbert & Apt, 1994). 성관계의 동기는 성관계를 하고 안하고에 대한 행동 변화를 조절하며, 성욕은 성관계를 하고 안하고에 대한 인지적 변화를 조절한다. 이처럼 인간의 성행동을 일으키는 데는 인지적 요소와 행동적 요소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Apt, 1996; Hill & Preston, 1996). 성행위는 성욕 없이 성행위 동기에 영향을 받아 일어날 수 있으며, 성행위 동기 없이 성욕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고, 성욕과 성행위 동기의 상호작용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Hurlbert et al., 2000). 따라서 성반응 주기는 성행위의 동기에 의해서 일어나든 성욕에 의해서 일어나든 성행동이 일어나는 순간부터 성행동을 그만두는 순간까지의 반응 주기로 볼 수 있다.

Masters와 Johnson(1966)이 성반응 주기를 발표한 이후로 많은 학자들은 인간이 그가 주장한 흥분기, 고원기, 절정기, 해소기를 거치는 성반응을 나타낸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성반응의 단계를 느슨하게 거치며, 오르가즘에 도달하는 시간도 더 길다. 개인에 따라서는 한번의 성관계에서 다수의 오르가즘(multiorgasm)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한번의 성관계에서 오르가즘을 여러 번 경험하는 여성은 한번 경험하는 여성보다 성관계에서 신체적인 만족도가 더 클 수 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다수의 오르가즘(multiorgasm)을 경험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만족이 높은 것은 아니다(Darling, Jennings, et al., 1991).

한편 Masters와 Johnson(1966)이 4단계의 성반응 주기를 발표한 것과는 달리, 최근의 연구는 여성의 성반응이 이 모델과 항상 일치하는 것이 아니며 성반응이 다양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연구도 있다(Whipple, 2002). 이 연구에 따르면, 여성은 성적 욕망이 없어도 성적 흥분과 오르가즘, 성만족을 경험할 수 있으며 오르가즘 없이도 성욕이나 성적 흥분, 성만족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만일 어떤 여

성이 성반응 주기의 모든 부분을 거치지 않고서 성적 만족을 느낀다면 이 여성에게 성적 장애가 있다고 진단을 내릴 수 있는가?’ 라고 반문하면서 여성의 성기능에서 중요하게 취급해야 하는 것은 성욕이나, 성적 흥분, 오르가즘 등이 아니라 성만족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Tiefer(2000)는 여성의 성기능 장애를 분류할 때에 성만족이야말로 가장 핵심적 요소라고 하며, 여성의 성기능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Whipple(2002)과 Tiefer(2000)의 주장은 여성이 각각의 성반응 단계를 모두다 경험함으로써 성생활의 질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성에서 성만족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며 성만족에 이르는 경로가 다양함을 강조한 의미로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성만족이 성기능을 의미한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성기능이란 각각의 성반응 단계에서 심리적 신체적으로 적절한 반응이 있는 것을 의미하며, 성만족은 이러한 반응을 경험하면서 느끼는 각자의 만족감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성기능을 여성의 성만족도에 관련된 요인으로 보는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3) 성일치도와 성만족도

부부가 성생활을 영위할 때, 서로의 생각이나 성관계 방식에서 차이가 있을 경우에 성적 갈등을 경험할 수 있다. 신혼기에 남성은 성적 욕구가 지나치게 높아 성관계를 요구하는 빈도가 많기 때문에 여성이 성적 불만족을 겪을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유아기나 아동기의 자녀를 둔 여성의 경우, 과도한 역할로 인해 심신이 피로해 지기 쉬운데 이러한 때, 남편의 성관계 요구가 많으면 성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연령의 증가에 따라 변화하는 성욕이 남녀간에 차이가 있음으로 인해 성생활의 갈등을 겪기도 한다(Greenblat, 1983; McLaern, 1990).

Wallin과 Clark(1963)은 성관계의 즐거움은 단지 남편이 원해서가 아니라 서로가 원해서 성교를 할 때 가장 높다고 했다. 성관계의 취향이나 선호를 일치시키려 할 때, 서로의 공통분모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시도하는 것을 경험해 보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부부는 서로의 성감을 보다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새로운 테크닉을 사용할 수 있다. 한 배우자가 새로운 테크닉이나 체위를 구사할 때 다른 배우자는 그것에 대해 낯선 것이라는 생각에 처음부터 거절하는 것보다는 가능한 협조하며 경험해 보고 함께 선택하는 것이 성만족에 도움이 된다. 성생활에서는 정상과 비정상 구별이 없으며 둘이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마쓰미네 히사미, 1990).

성관계 빈도, 선호하는 체위와 성테크닉, 성관계 시간, 성에 대한 신념, 가치관, 성에 대한 태도 등에서 부부가 서로 일치하는 것을 성 일치도라고 한다. 이러한 성 일치도는 성관계의 동기는 물론 성만족도와 결혼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Hurlbert et al., 2000). 성일치도가 높은 사람은 서로의 물리적 관계 이상으로 마음이 잘 통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Buss, 1984) 이러한 일치는 성의 여러 측면에서도 부부가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Mehrabian, 1989). 또한 이는 전반적인 성만족도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부부의 성생활에서 성적 일치도는 매우 중요하다(Hurlbert et al., 2000).

4) 성태도와 성만족도

성태도는 성에 대한 느낌과 생각, 가치관 및 성욕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Mecloski, 1976) 성생활과도 관련되어 있어, 일단 형성되면 장기간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Derogatis, 1980). 성행동의 변화 속도에 비해 성에 대한 태도는 매우 느리게 변화한다. 과거 전통적인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성에 대해 소극적이어야 하고 혼전 및 혼외의 성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개방화의 영향으로 그 동안 남녀간에 적용되었던 성에 대한 이중기준이 감소되고 혼전 성행위를 허용하는 등, 성에 대한 태도가 보다 허용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성태도는 자라온 환경이나 부모의 양육태도, 사회적 태도 등에 의해 형성되는 성 스크립트의 영향을 받는다. 성 스크립트란 인간이 성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해 문화적으로 프로그램

화된 일련의 기대들로서 성에 대한 관념을 의미한다(Lloyd & Weiten, 1997). 시대에 따라 성 스크립트는 크게 전통적인 가부장적 성 스크립트와 표현적인 성 스크립트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통적인 가부장적 성 스크립트는 자위행위나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고, 나이가 든 사람은 성관계를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여성의 성은 남성의 성에 비해 보수적이어야 하고, 성은 남성이 주도해야 하고, 혼전순결의 이중적 기준이 가능하다는 태도이다. 반면에 표현적인 성 스크립트는 성을 단지 생물학적인 만족으로만 보기보다는 성행위를 통해 친밀함을 나누고 서로 의사소통하는 것에 더 관심을 두는 태도이다(Pietropinto & Simmenauer, 1977).

점차 많은 여성들이 전통적 가부장적 성 스크립트에서 벗어나 표현적 성 스크립트를 형성해 감에 따라 개방적인 성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성적 즐거움을 가치 있게 여기며, 성생활에서 정서적 유대와 신체적 만족 양쪽에 역점을 둔다(Hunt, 1974). 최근의 연구들은 사회적 가치기준이 어떠한지 간에 성적 표현에 있어서 남녀의 동질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성태도가 변화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William & Barnes, 1988).

성태도에 따라 성생활 만족여부가 달라진다. 연구자들은 성적으로 자기의 요구를 주장하는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성만족도가 더 높다고 함으로써 수동적 태도보다는 남녀가 성에 대해 평등적 태도를 갖는 것이 성만족도를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Huffbert & Whittaker, 1991).

5) 성지식과 성만족도

성은 두 사람이 친밀함을 나누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에 대한 지식이 잘못되어 그릇된 인식을 갖게 되면 성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과거에 믿었던 사실이나 사회적 통념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 종종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성에 대한 정보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위험한 일 일수 있다.

성에 대한 사회의 개방풍조에 영향을 받아 사람

들은 보다 많은 성지식을 접하게 되었다. 성을 숨기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태도는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에 접근 할 수 없으며, 부부간의 만족스런 성생활에도 저해요소가 된다. 성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정확하고 충분할수록 성생활 만족도는 높아진다(Mecloski, 1976). 또한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정확한 지식은 성적 문제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보다 만족스럽고 책임감 있는 성생활을 영위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Masters, Johnson, & Kolodny, 1985).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행연구는 성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성 특성 변인에 성의사소통, 성기능, 성일치도, 성태도, 성지식 등이 중요한 변인임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 변인이 기혼여성의 성만족도를 통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3. 성행동과 성만족도

부부는 성생활을 영위하면서 서로의 성만족을 위해 다양한 성행동을 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성행동 중에서 성관계 빈도, 전회를 포함한 성관계 시간, 아내의 오르가즘 빈도 등이 아내와 남편의 성만족도와 정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Zhou, 1993).

성관계 빈도가 많을 수록 성만족도가 높은 경향이 있는데, 이는 빈도가 성만족도에 영향을 준 것인지 성만족도가 성관계 빈도에 영향을 준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이지만(Young et al., 2000) 많은 연구에서 성관계 빈도와 성만족도 증가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Hurlbert et al., 1993; Zhou, 1993). 이러한 결과에 대해, 성관계를 자주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자주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성관계에 만족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만족하지 않는 사람은 성관계의 즐거움과 만족감이 적기 때문에 더욱 성관계를 덜 하게 됨으로써 성관계 빈도와 만족도가 정적인 관계로 나타난다는 주장도 있다(Kelley, 1994). 그러나 성감은 훈련과 학습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므로 성관계 빈도가 낮다는 것은 성감을 증진

시킬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진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관계 빈도를 성만족도의 구성 요인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론에 기초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오르가즘은 신체적인 감각과 관계가 있는 심리적 현상이며 성적인 긴장을 방출시키는 기능을 갖는다(윤가현, 1990). 여성의 성만족에서 오르가즘은 매우 중요하며(Darling, Cox, et al., 1991; Perlman & Abramson, 1981) 성만족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사용되고 있다(Hurlbert et al., 1993). 일반적으로 오르가즘을 동반하는 성관계가 오르가즘이 없는 성관계보다 성만족도를 더 크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Lief, 1980), 성적으로 만족하는 사람일수록 성적으로 불만족스런 사람보다 더 많은 오르가즘을 느낀다고 보고되어 있다(Perlman & Abramson, 1981). 또한 오르가즘을 느끼는 빈도가 감소하면 성적 불만족이 증가한다고 한다(Waterman & Chiauzzi, 198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행동 중에서 성만족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성관계 빈도, 성관계 지속시간, 오르가즘 빈도 등을 성행동의 주요 변인으로 선택하여, 이 변인들이 기혼여성의 성만족도를 통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4. 성만족도와 결혼만족도

성만족도란 성관계와 관련된 긍정적·부정적인 면에 대해 개인의 주관적 평가를 통해 일어나는 감정적 반응이다(Lawrance & Byers, 1995). Frank, Downard, & Lang(1986)은 성생활 만족이란 신체적 자극과 심리적 자극사이의 함수 결과라고 설명하였고, Hite(1976)는 여성의 성생활 만족은 정서적인 친밀감, 부드러움, 밀착감,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깊은 감정이라고 하였다. 또한 Bell & Bell(1972)은 성만족이란 성행위에서 상대방과 친밀감을 갖고 하나됨을 느끼는 것이라고 하였고, Landis(1975)는 성생활 만족의 상태란 성교횟수나 성행위 빈도라기보다는 부부간에 서로의 욕구가 잘 받아들여진 상태라고 하였다.

이영실(1989)은 기혼여성의 성생활에 불만족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성생활에 즐거움이 없는 것, 부부 상호간의 친밀감이 결여된 것, 임신의 두려움 등을 들었다. Kaplan(1990)은 부부간의 정서적 갈등, 힘의 대결, 부적절한 의사소통, 신뢰감 부족 등이 성만족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하였으며, 실제 임상연구를 통해 갈등적 관계를 가진 부부에게서 성욕구의 감소가 나타났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Hatfield 등(1982)은 부부사이에 동료적인 동등함이 있을 때 성만족이 증가된다고 하면서 인간관계의 평등성을 강조하였다.

결혼생활에서 성생활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현대로 접어들면서 여권운동이나 성 개방의 영향으로 결혼생활에서 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이효재, 1986). 성적인 불만족은 개인의 욕구나 우울, 불안, 불면증, 자살 등에 영향을 주며(Stack & Gunklach, 1992), 결혼생활의 안정을 저해하여 가족의 붕괴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그러므로 성생활의 만족 여부는 개인 삶의 모든 부분에 연관되어 삶의 질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영향은 부부사이의 관계에 파급되어 만족한 경우에는 가정내의 안정이나 평형에 기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생활 만족도가 결혼만족도에 끼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조사절차

본 연구의 대상은 청주시에 거주하는 기혼여성이며, 연령은 20세부터 50세 미만이다. 연구대상을 50세 미만으로 제한한 이유는 50세 이상 여성의 대부분이 폐경기 이후의 달라진 신체조건과 심리적 영향, 남편의 감퇴된 성욕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Kaplan, 1990; Deeks & McCabe, 2001; McCoy, 1998) 이들은 '노년기의 성'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

어 본 연구에서 제외시켰다.

자료의 표집방법은 의도적 목적표집으로 청주시에 소개하고 있는 산부인과 3곳에 방문한 외래환자와 사회교육원의 수강생 및 자모회에 참석한 기혼여성들로부터 수집했다. 응답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자가 응답 대상을 개별 면접하여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응답에 동의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자료를 얻었다. 연구의 특성상 개인적 사생활이 노출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염려가 크므로 연구자가 직접 면담하는 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해 자기보고를 하도록 하였으며, 응답하는 과정에서 질문의 내용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을 연구자에게 묻도록 하였고 응답자가 묻는 항목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였다.

예비조사는 2002년 9월 23일, 24일에 걸쳐 기혼여성 4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수정 보완한 질문지를 본조사에 사용하였다. 본조사는 2002년 9월 27일부터 10월 5일 까지 실시하였으며, 응답자가 끝까지 응답한 질문지 221부를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2. 측정도구

1) 성의사소통

부부사이에 이루어지는 성에 관한 대화를 평가하기 위해 Catania(1986)가 개발한 DSC(Dyadic Sexual Communication Scale)척도의 13문항을 수정·변안하여 가족학 전문가와 성 관련 전문가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거쳐, 예비조사를 통해 문항간 상관이 낮은 문항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우리나라 사람에게 적용하기 어려운 문항을 제외시키고, 최종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총 10문항을 본 연구의 측정도구로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부가 서로 성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긍정적이고 개방적이며 솔직하게 하고 있는가를 아내가 직접 평가하는 것으로 '거의 그렇지 않다' 0점에서 '거의 그렇다' 3점까지 4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 수록 부부가 성에 대한 이야

기를 긍정적이며 개방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값이 .77이다.

2) 부부의 성기능

부부의 성기능을 측정하기 위해 McGahuey와 동료들(2000)이 개발한 ASEX (The Arizona Sexual Experience Scale)척도의 아내에 대한 문항 5문항과 남편에 대한 문항 5문항을 변안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성치료 전문가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기능을 측정하는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으로 아내에 대한 1문항과 남편에 대한 3문항을 추가하였다. 가족학 전문가와 성 관련 전문가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거쳐, 최종적으로 아내에 대한 6문항과 남편에 대한 8문항을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아내에 대한 질문지의 추가 문항은 '귀하는 성적인 기능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이며, 남편에 대한 질문지에 추가한 3문항은 '남편은 발기상태가 충분히 지속됩니까?', '남편은 사정한 후 다음 발기가 쉽게 됩니까?', '남편은 성적인 기능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이다.

이 척도는 부부 양측의 성기능에 대해 아내 자신이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보고하는 질문지로서 최하 0점에서 최상 3점까지 4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많을 수록 아내자신과 남편의 성기능을 높게 평가하는 것이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아내의 경우 Cronbach 값이 .82이며, 남편의 경우 Cronbach 값이 .85이다.

3) 성일치도

부부의 성일치도를 측정하기 위해 Hurlbert(1993)가 개발한 HISC(Hurlbert Index of Sexual Compatibility)척도의 25문항을 수정·변안하여 가족학 전문가와 성 관련 전문가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거쳐, 예비조사를 통해 문항간 상관이 낮은 1문항을 제외시키고, 최종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총 24문항을 본 연구의 측정도구로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성관계 빈도, 선호하는 체위와 성 테크닉, 성관계 시간, 성에 대한 신념, 가치관, 태도, 만족감 등 성 전반에 대해 부부가 얼마나 일치하는가를 측정하고 있다. 질문지는 아내자신의 보고를 통해

측정하는 것으로 '거의 그렇지 않다' 0점에서 '거의 그렇다' 3점까지 4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 수록 부부가 성 전반에 대한 선호도와 취향의 일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값이 .90이다.

4) 성태도

성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Hudson과 Murphy(1990)가 개발한 SAS(Sexual Attitude Scale) 척도를 수정·번안하여 가족학 전문가와 성 관련 전문가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거쳐, 예비조사를 통해 문항간 상관관이 낮은 문항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우리나라 사람에게 적용하기 어려운 문항을 제외시키고, 최종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총 13문항을 본 연구의 측정도구로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성에 대해 얼마나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으로 '거의 그렇지 않다' 0점에서 '거의 그렇다' 3점까지 4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 수록 성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높게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값이 .81이다.

5) 성지식

기혼여성이 성에 관한 지식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를 측정하기 위하여 정현숙, 최연실, 유계숙(1998)이 제작한 성지식 질문지에서 예비조사를 통해 문항간 상관관이 낮은 1문항을 제외시키고 23문항을 본 연구의 측정도구로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부부의 성과 일반적인 성에 관한 지식을 묻는 내용으로 각 문항마다 정답을 맞추면 1점 틀리면 0점으로 처리하여 맞춘 개수의 총점을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 수록 성에 대한 지식이 많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Guttman spilt-half 값이 .70으로 나타났다.

6)기혼여성의 성행동

기혼여성의 성행동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빈도에 대한 연구(Call, Susan, & Pepper, 1995), 성심리학(윤가현, 1990), 새로운 성치료(Kaplan, 1990)에

서 성행동과 관련된 자료를 찾아 연구자가 총6 문항으로 된 질문지를 제작하여 연구에 사용하였다. 질문 내용은 상관관계 빈도에 관한 문항, 상관관계 소요 시간에 관한 문항, 오르가즘에 관한 문항등으로 구성하였다.

7) 성만족도

성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Derogatis와 Melisaratos(1979)가 개발한 DSFI(Derogatis Sexual Function Inventory)를 장순복 등(1998)이 수정·번안하여 활용한 것에서 성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묻는 2문항을 발췌하여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각각의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다' 0점에서 '거의 그렇다' 3점까지 4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었으며 두 문항의 점수를 합하여 가장 만족하지 않은 경우를 0점, 가장 만족하는 경우를 6점으로 점수화하였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값이 .73이다.

8) 결혼만족도

결혼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Schumm과 동료들(1986)이 개발한 KMSS(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를 김영희(1999)가 수정·번안하여 활용한 것에서 결혼생활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묻는 3문항을 발췌하여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각각의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다' 0점에서 '거의 그렇다' 3점까지 4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었으며 3문항의 점수를 합하여 가장 만족하지 않을 경우를 0점, 가장 만족하는 경우를 9점으로 하여 점수화하였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값이 .95이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WIN과 LISREL(Linear Structural Relationship)VIII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성에 관한 질문지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와 Guttman spilt-half 값을 산출하였다. 상관관계를 사용하여 변인간 상관을 분석하였으며 제안된 이론적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 LISRELVIII을 이용한 경로분석을 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는 선행연구에서 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연령, 학력, 직업, 소득수준, 종교, 배우자와의 연령차, 막내자녀 연령, 결혼기간 등을 살펴보았으며, 이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1>과 같다.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성 특성과 성행동

일반적으로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학력과 연령은 성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알려져 있다 (Blumstein & Schwartz, 198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력과 연령이 성 특성 변인과 관련성이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성 특성 중 성의사소통, 성지식, 성일치도, 성태도 등은 아내와 남편의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2). 아내와 남편의 학력이 대졸이상인 집단이 고졸이하인 집단에 비해 성에 관한 대화를 더 긍정적이며 솔직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인	구분	빈도(%)	변인	구분	빈도(%)
연령	20세 - 29세	52 (23.5)	가족 소득	150만원 미만	25 (11.3)
	30세 - 34세	63 (28.5)		150-300만원	133 (60.2)
	35세 - 39세	65 (29.4)		300-500만원	44 (19.9)
	40세 - 49세	41 (18.6)		500만원 이상	19 (8.6)
	계	221 (100.0)		계	221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이하	99 (44.8)	남편과의 연령차	0 - 3세	146 (66.1)
	대학교 졸업	100 (45.2)		4 - 7세	72 (32.6)
	대학원 재학 이상	22 (10.0)		8세 이상	3 (1.4)
	계	221 (100.0)		계	221 (100.0)
직업	취업여성	81 (36.7)	막내 자녀 연령	자녀 없음	22 (9.5)
	전업주부	140 (63.3)		현재 임신중	16 (7.2)
	계	221 (100.0)		0세 -만 2세미만	38 (17.2)
종교	불교	49 (22.2)		만 2세 - 취학전	67 (30.3)
	기독교	63 (28.5)		초등학생	51 (23.1)
	천주교	33 (14.9)		중학생	13 (5.9)
	무교	76 (34.4)	고등학생이상	15 (6.8)	
	계	221 (100.0)	계	221 (100.0)	
남편 학력	고등학교 졸업이하	58 (26.3)	결혼 기간	0년 - 1년 미만	20 (9.0)
	대학교 졸업	128 (57.9)		1년 - 5년 미만	51 (23.1)
	대학원 재학이상	35 (15.8)		5년 - 10년 미만	61 (27.6)
	계	221 (100.0)		10년 - 15년 미만	54 (24.4)
남편 직업	고위임직원/관리자	27 (12.2)		15년 - 20년 미만	23 (10.4)
	전문/자유직	33 (14.9)		20년 이상	12 (5.4)
	사무/기술직	90 (40.8)	계	221 (100.0)	
	자영업	37 (16.7)			
	판매/서비스직	8 (3.6)			
	기능/노무직	26 (11.8)			
	계	221 (100.0)			

<표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성 특성

종속변인	독립변인(범주)		빈도	평균(표준편차)	F(t)
성의사소통	남편 학력	고졸이하	58	1.97(.63)	-4.56***
		대졸이상	163	2.34(.48)	
	아내 학력	고졸이하	99	2.15(.59)	-2.25*
		대졸이상	122	2.31(.51)	
	아내 연령	20세-29세	52	2.31(.48)	1.78
		30세-34세	63	2.32(.49)	
35세-39세		65	2.19(.56)		
40세-49세		41	2.10(.67)		
성기능(아내)	남편 학력	고졸이하	58	1.41(.63)	-1.44
		대졸이상	163	1.55(.69)	
	아내 학력	고졸이하	99	1.46(.68)	-.94
		대졸이상	122	1.55(.67)	
	아내 연령	20세-29세	52	1.45(.62)	1.19
		30세-34세	63	1.63(.64)	
35세-39세		65	1.42(.74)		
40세-49세		41	1.53(.69)		
성기능(남편)	남편 학력	고졸이하	58	2.10(.63)	-.08
		대졸이상	163	2.10(.54)	
	아내 학력	고졸이하	99	2.10(.61)	.05
		대졸이상	122	2.10(.52)	
	아내 연령	20세-29세	52	2.05(.53)	1.76
		30세-34세	63	2.23(.45)	
35세-39세		65	2.04(.62)		
40세-49세		41	2.02(.63)		
성일치도	남편 학력	고졸이하	58	1.77(.54)	-4.47***
		대졸이상	163	2.13(.51)	
	아내 학력	고졸이하	99	1.95(.56)	-2.13*
		대졸이상	122	2.10(.51)	
	아내 연령	20세-29세	52	2.11(.43)	.99
		30세-34세	63	2.07(.58)	
35세-39세		65	1.96(.60)		
40세-49세		41	2.00(.49)		
성태도	남편 학력	고졸이하	58	1.18(.48)	-2.25*
		대졸이상	163	1.35(.50)	
	아내 학력	고졸이하	99	1.21(.49)	-2.48*
		대졸이상	122	1.38(.50)	
	아내 연령	20세-29세	52	1.34(.43) a	4.37**
		30세-34세	63	1.42(.53) a	
35세-39세		65	1.31(.53) ab		
40세-49세		41	1.07(.44) b		
성지식	남편 학력	고졸이하	58	12.45(2.70)	-3.10**
		대졸이상	163	13.77(2.81)	
	아내 학력	고졸이하	99	12.82(2.82)	-2.89**
		대졸이상	122	13.91(2.77)	
	아내 연령	20세-29세	52	13.13(2.67)	1.66
		30세-34세	63	14.00(2.89)	
35세-39세		65	13.46(2.88)		
40세-49세		41	12.83(2.95)		

*p<.05. **p<.01. ***p<.001.

이는 성의사소통이 부부의 학력과 정적 상관을 보인다는 김임영(2002)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부부가 성적인 기호와 취향 및 성적 신념에서 얼마나 일치하는가를 나타내는 성일치도는 부부의 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와 남편이 각각 대졸이상인 집단이 고졸이하인 집단에 비해 성일치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아내와 남편의 학력이 높을 수록 성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고 성태도가 더 개방적임을 볼 수 있다.

성태도는 부부의 학력 이외에도 아내의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아내 연령이 20대와 30대 초반의 집단이 40대 집단에 비해 더 개방적임을 볼 수 있다. 이는 아내의 연령이 젊을 수록 성태도가 더 개방적이라고 한 이인숙(2000)의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 밖에 아내와 남편의 성기능은 학력과 연령에 따라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선행연구는 성행동에 포함된 성관계 빈도, 성관계

시간, 오르가즘의 빈도 등이 연령, 학력, 직업, 결혼 기간 등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밝혔다(Greenblat, 1983; James, 1981; Kinsey et al., 1953; McLaem, 1990; Vaign, Susan, & Pepper, 199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들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성행동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아내의 연령에 따라 오르가즘의 빈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아내 연령이 20대인 집단이 30대와 40대의 집단에 비해 오르가즘을 경험하는 빈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아내의 경우 결혼 초에는 잘 모르고 의무감에 성생활을 하다가 30대에 이르러 성을 알고 즐기게 되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성적 욕구도 증가한다는 문혜숙(1993)의 결과와 일치하는 내용이다.

아내의 직업 유무에 따라 성관계 지속시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직업이 있는 여성이 전업주부에 비해 성관계를

<표 3>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성행동

독립 변인	종속변수 범주	성관계 빈도		성관계 지속시간		오르가즘 빈도	
		빈도	M(SD)	빈도	M(SD)	빈도	M(SD)
아내 연령	20대	52	4.17(1.08)	52	3.96(1.79)	51	3.63(1.59)b
	30대 초반	63	4.52(.82)	61	4.16(1.93)	62	4.53(1.75)a
	30대 후반	65	4.45(.90)	65	4.12(1.88)	63	4.43(1.85)a
	40대	41	4.44(.84)	41	3.32(1.99)	41	4.56(1.79)a
	F		1.53		1.97		3.29*
아내 직업	직장여성	81	4.48(.95)	79	4.38(1.91)	79	4.42(1.73)
	전업주부	140	4.36(.90)	140	3.70(1.86)	138	4.22(1.81)
	t		.97		2.57*		.77
남편 직업	관리/전문/자유직	60	4.43(.98)	59	4.46(1.87)a	58	4.76(1.71)
	사무/기술직	90	4.32(.88)	89	3.79(1.95)b	89	4.11(1.75)
	자영업/서비스/노무직	71	4.48(.91)	71	3.72(1.82)b	70	4.14(1.82)
	F		.62		3.00*		2.74
결혼 기간	0-5년 미만	71	4.31(1.05)	69	3.88(1.78)	70	3.79(1.58)b
	5-10년 미만	61	4.39(.80)	61	4.10(2.04)	60	4.32(1.85)ab
	10-15년 미만	54	4.43(.84)	54	4.24(1.96)	54	4.72(1.74)a
	15년 이상	35	4.57(.95)	35	3.34(1.75)	33	4.64(1.90)a
	F		.65		1.77		3.48*

*p<.05.

더 길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러 선행연구와 차이가 나는 결과이다. 선행연구는 직업이 있는 여성의 경우 직장일과 가사 일의 이중적 부담으로 인해 성관계 시간을 더 적게 갖는다고 하였다 (Greenblat, 1983; Vaign et al., 1995).

남편의 직업에 따라 성관계 지속시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남편의 직업이 관리/전문/자유직인 집단이 사무/기술/서비스/노무직 등의 집단에 비해 성관계 지속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기간에 따라서 오르가즘의 빈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결혼기간이 5년 미만인 집단이 10년 이상인 집단에 비해 오르가즘을 경험하는 빈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결혼기간이 5년 미만인 집단은 대부분 20대와 30대 초반이며, 결혼기간이 10년 이상인 집단은 30대 후반과 40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결혼기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오르가즘 빈도의 차이는 사실상 연령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아쉽게도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들은 결혼기간과 연령이 비례하는 분포를 보이기 때문에 오르가즘 빈도의 차이가 연령에 따라

나타난 것인지 결혼기간에 따라 나타난 것인지 밝힐 수 없었다.

선행연구에서는 아내와 남편의 연령, 직업, 결혼기간 등이 성관계 빈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라고 하였다. 즉 아내와 남편의 연령이 젊을 수록 (Blumstein et al., 1983), 사무직이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보다는 노동직에 종사하는 사람일 수록 (Greenblat, 1983), 결혼기간이 짧을 수록 (Donnelly, 1993) 성관계 빈도가 높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그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 성 특성, 성행동과 성만족도 및 결혼만족도

기혼여성의 성 특성, 성행동과 성만족도 및 결혼만족도의 상관관계, 평균, 표준편차는 <표 4>와 같다. 각 변인들의 유의한 상관계수는 .14에서 .70 사이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보이지 않아 각 변인들이 독립적인 개념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의 이론적 연구모델을 기초로 하여 성 관련변인들의 구조방정식모델에 대한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chi^2=33.07(p<.001, df=9)$ 로 나타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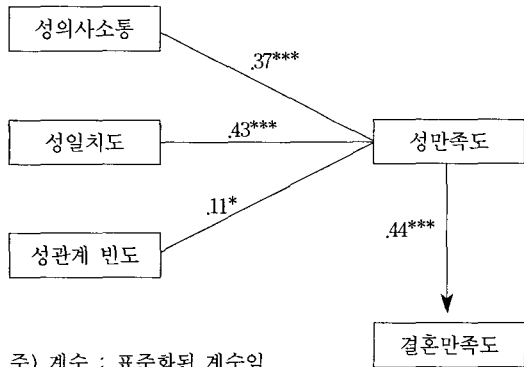
<표 4> 성 특성, 성행동과 성만족도 및 결혼만족도 사이의 상관관계

		성 특성						성행동			성만족도	결혼만족도
		성 의사소통	성 기능(아내)	성 기능(남편)	성 일치도	성 태도	성 지식	성 관계 빈도	성 관계 시간	오르가즘 빈도		
성 특성	성 의사소통	1.00										
	성 기능(아내)	.42***	1.00									
	성 기능(남편)	.32***	.40***	1.00								
	성 일치도	.64***	.53***	.35***	1.00							
	성 태도	.11	-.04	-.04	.07	1.00						
	성 지식	.14*	.12	.08	.15*	.37***	1.00					
성행동	성관계 빈도	.20**	.23***	.28***	.24***	-.13	-.02	1.00				
	성관계 시간	.23***	.31***	.28***	.32***	.10	.19**	.08	1.00			
	오르가즘 빈도	.34***	.50***	.27***	.40***	-.12	-.08	.07	.28***	1.00		
	성만족도	.67***	.45***	.26***	.70***	.04	.02	.28***	.19**	.37***	1.00	
	결혼만족도	.37***	.19**	.23***	.51***	-.00	.06	.25***	.09	.10	.44***	1.00
	평균	2.24	1.51	2.09	2.03	1.30	13.40	2.60	3.95	4.29	4.49	6.82
	표준편차	.55	.67	.56	.54	.50	2.84	.92	1.91	1.78	1.76	2.58

*p<.05, **p<.01, ***p<.001.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일반적으로 χ^2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가설적 모델이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며, 성 관련변인들의 구조방정식모델에 대한 χ^2 검증은 모델이 자료에 부합되지 않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χ^2 값은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χ^2 값이 영가설(모델이 적합하다)을 기각할 가능성이 커진다(Bentler & Bonett, 1980). 따라서 χ^2 보다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덜 받는 GFI(Goodness of Fit Index), AGFI(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NFI(Normed Fit Index), 그리고 RMSR(Root Mean Square Residual) 지수를 사용하여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적합도 지수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GFI, AGFI, NFI의 지수가 .90이상이고 RMSR의 지수는 .05이하일 때 적합하다고 본다(Maruyama, 1998). 본 연구에서 제안된 모델의 적합도 지수는 GFI=.97, AGFI=.90, NFI=.97, RMSR=.03으로 χ^2 값을 제외한 다른 적합도 지수가 모두 이 기준에 부합되고 있다. 따라서 이론적 연구모델을 수용하기에 가능한 적합도임을 보여주고 있다.

기혼여성의 성 관련변인에 대해 경로분석을 통한 매개모델은 <그림 2>와 같고, 변인들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는 <표 5>에 제시한 바와 같다. 성 관련변인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 계수 : 표준화된 계수임
*p<.05. ***p<.001.

<그림 2> 성 특성, 성행동과 성만족도 및 결혼만족도에 대한 매개모델

성에 관한 부부의 의사소통은 기혼여성의 성만족도에 직접적인 효과($\gamma=.37$)를 갖고 있으며 결혼만족도에는 성만족도를 매개변인으로 하여 간접적인 효과($\gamma=.16$)를 갖고 있다. 이는 부부가 성에 대하여 서로 솔직하고 긍정적으로 대화를 함으로서 성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이러한 성만족은 결혼만족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의사소통이 성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는 많은 선행연구(Byers et al., 1999; Ferroni & Taffee, 1997; Masters & Johnson, 1966)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성의사소통이 높을 수록 기혼여성의 성만족도가 높다는 서선영(2002)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내용이다.

부부가 성적으로 얼마나 잘 맞는가를 나타내는 성일치도가 성만족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43이며, 성만족도를 매개변인으로 하여 결혼만족도에는 .19의 간접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부가 성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태도, 취향이 일치할 수록 성만족도가 높아진다는 Huribert 등(200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내용이다. 또한 성관계의 즐거움은 단지 남편이 원해서가 아니라 서로가 원해서 성관계를 할 때 가장 높다고 한 Wallin과 Clark(1963)의 결과와도 맥을 같이하는 결과이다.

성관계 빈도는 성만족도에 .11의 직접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만족도에는 성만족도를 매개변인으로 하여 .05의 간접효과를 갖고 있다. 즉 성관계를 자주 하는 사람일 수록 성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크게 느끼며, 이러한 만족감이 결혼생활의 만족감으로 이어진다는 의미이다. 이 결과는 성관계

<표 5> 성 특성과 성행동 변인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독립변인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종속변인
성의사소통	.37	.	.37	성만족도
	.	.16	.16	결혼만족도
성일치도	.43	.	.43	성만족도
	.	.19	.19	결혼만족도
성관계 빈도	.11	.	.11	성만족도
	.	.05	.05	결혼만족도
성만족도	.44	.	.44	결혼만족도

빈도와 성만족도 증가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내용이다(Hurlbert et al., 1993; Zhou, 1993). 이처럼 성관계 빈도가 많을 수록 성만족도가 높은 경향이 있다는 연구결과에 대해 Young 등(2000)은 성관계 빈도가 성만족도에 영향을 준 것인지 성만족도가 성관계 빈도에 영향을 준 것인지는 알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며, 인과관계의 모호함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이 있는데, 성관계를 자주 하는 사람들은 성관계 빈도와 성만족도를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는 경향이 있으며, 성생활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적인 즐거움이 적기 때문에 더욱 성관계를 하지 않아 빈도가 낮아진다는 것이다(Kelley, 1994).

본 연구에서는 성만족도가 결혼만족도에 .44의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결혼생활의 만족도에 성만족이 중요한 변수임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성만족도가 결혼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그간의 선행연구 결과를 이 연구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Hurlbert et al., 1993; Marokoff & Gilliland, 1993). 성의사소통과 성일치도, 성관계 빈도를 제외한 다른 변인들이 성만족도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기혼여성의 성 특성과 성행동 요인이 성만족도를 거쳐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성적 불만족에서 비롯되는 부부갈등을 최소화하는 방법과 조화로운 성생활과 결혼생활을 영위하는 방법을 모색하여, 부부 성교육과 부부상담 현장에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 결과, 사회인구학적 특성 중에서 부부의 학력이 높을 수록 성의사소통, 성일치도, 성태도, 성지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관계 지속시간은 아내가 직장여성일때와 남편의 직업이 관리/전문/

자유직일 때 더 높게 나타났으며, 오르가즘 빈도는 아내의 연령이 20대인 경우와 0-5년의 결혼기간에 해당하는 집단이 타 집단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 특성과 성행동 요인 중에서 성의사소통, 성일치도, 성관계 빈도는 성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성만족도를 매개로 하여 결혼만족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변인 중 성만족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일치도이다. 그러나 부부의 성기능, 성태도, 성지식 등의 성 특성 변인과 성관계 지속시간, 오르가즘 빈도 등의 성행동 요인은 성만족도와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의 학력이 높을 수록 성의사소통, 성일치도, 성태도, 성지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력이 높은 집단이 성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 성지식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성지식은 개방적인 성태도록 이어지고 부부의 성 의사소통을 증가시켜 성일치도가 높아진것이라 해석된다.

둘째, 직장여성이 전업주부에 비해 성관계 지속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부부의 직업에 따른 이러한 차이는 더 많은 연구와 논의를 필요로 한다.

셋째, 아내의 연령이 20대인 경우와 결혼기간이 0-5년 사이의 집단이 타 집단에 비해 오르가즘 빈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내의 경우 결혼 초기에는 잘 모르고 의무감에 성생활을 하다가 30대에 이르러 성을 알고 즐기게 되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성적 욕구와 성감이 발달하게 되어 오르가즘을 경험하는 빈도도 증가하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기간이 5년 미만인 집단은 대부분 20대와 30대 초반이며, 결혼기간이 10년 이상인 집단은 30대 후반과 40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결혼기간에 따라 나타난 오르가즘 빈도의 차이는 연령으로 인해 발생한 차이로 보아야 한다.

넷째, 부부사이의 성에 관한 의사소통은 성만족도를 매개하여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 부부가 성에 대하여 서로 솔직하고 긍정적으로 대화를 함으로서 성만족도와 결혼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의미이다. Byers & Demmons(1999)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부부가 성에 관한 이야기를 개방적으로 할 수록 배우자의 욕구와 욕망을 알 수 있으며, 자신의 욕구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성관계가 형성되며, 이에 따라 성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교환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성에 관한 대화를 통해 싫어하는 성행위만을 감소시킴으로써 좋아하는 성행위가 불필요하게 감소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그 결과 손실이 적어지고 보상이 증가하게 되어 결국 성만족이 커지는 것이다(Derlega & Grzelak, 1979; Gordon & Snyder, 1986). 따라서 이 결과는 부부가 성에 관한 감정과 성체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면 성적 갈등이 지속화되어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성에 대해 솔직하게 표현하는 훈련을 통해 성만족과 결혼생활의 만족을 증진시키도록 노력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다섯째, 부부가 성적인 취향과 선호도, 성적 신념 및 태도 등에서 얼마나 잘 맞는가를 나타내는 성일치도는 성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성만족도가 성기능, 성지식, 성태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성일치도에 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는 부부가 성기능이나 성지식, 성태도가 높고 낮음에 의해 성만족도가 달라지기보다는 서로 가지고 있는 성기능과 성지식, 성태도에서 서로 일치되었을 때 성만족을 느낀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부부 중 어느 한쪽은 성기능이 높는데 비해 한쪽은 낮을 경우 둘 다 성기능이 낮을 때 보다 오히려 성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며, 성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태도나 성지식 면에서도 어느 한쪽은 개방적이고 성에 대한 지식이 많지만 상대방은 그렇지 못하게 되면 서로에게 기대하는 바가 달라져서 오히려 성적 갈등을 초래하기 쉽다. 따라서 이 연구결과는 만족스런 성생활을 위해서는 성기능, 성지식, 성태도 등을 부부 중 한쪽만 증가시키는 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

하며, 부부가 이러한 것들을 함께 증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여섯째, 성관계 빈도가 많을 수록 성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Young 등(2000)의 주장대로 두 변인사이의 인과관계가 모호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성관계 빈도가 적을 경우, 부부가 성에 대한 서로의 신념과 선호하는 바를 교환하고 차이를 좁혀 나갈 수 있는 기회도 그만큼 적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서로가 만족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여 성 만족도가 낮은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성관계 빈도가 높은 사람은 성관계 빈도와 성만족도를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는 경향과 함께(Kelley, 1994), 빈도가 적을 사람들과는 반대로 서로의 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짐으로써 성에 대한 공통성을 증가시킴에 따라 성만족도가 높아진 것이라고 해석된다.

일곱째, 성 만족도는 결혼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연구에서 성 만족도를 구성하는 요인으로 성의사소통, 성일치도, 성관계 빈도인 것으로 보아 이들 요인이 성 만족도를 통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부부상담 현장에서는 성적 갈등으로 인해 결혼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에게 성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물리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부부가 대화를 통해 서로의 성에 대한 공통점을 찾아내고, 차이점을 좁혀나가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성적 갈등을 극복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또한 이 결과는 성에 대한 이해와 만족감이 부부의 친밀도를 증가시켜 결혼생활의 만족도를 증가시키게 됨으로써 건강한 가정생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일반 부부들에게도 성교육을 통해, 성적 갈등을 예방하여 조화로운 성생활과 결혼생활을 영위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성만족도와 관련하여 연구된 개별요인들이 성만족도를 통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한 모델안에서 연구함으로써, 결혼관계 안에서 성과 그 관련변수를 연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여러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어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언을 하면, 첫째, 본 연구에는 성 관련변인을 측정하기 위해 외국에서 개발된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는데, 문항이 우리의 문화와 차이가 남으로 인해서 측정의 정밀함이 결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아직 국내에는 성과 관련된 척도가 개발된 것이 없어 연구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사람의 성경험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상담 현장에서 실제적인 관련자료를 수집하여 우리의 정서와 문화에 맞는 성관련 척도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부부 중에서 기혼여성만을 대상으로 연구하였기 때문에 여성의 성에 대한 특성만을 밝힐 수 있었다. 그러나 남성의 성은 주로 신체적 특성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마쓰미네 히사미, 1990) 본 연구의 결과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즉, 성만족이나 결혼만족에 영향을 주는 성 변인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며, 성행동에 영향을 주는 성 특성도 아내와 다를 수 있다. 또한 부부를 쌍으로 연구할 때 성태도나 성지식, 성기능에서 일하는 부부와 그렇지 않은 부부의 차이를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부부를 쌍으로 하여, 아내와 남편이 성에 대해 받아들이고 느끼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봄으로써 부부의 성만족과 결혼만족의 요인을 밝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성특성과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이와는 별도로 성특성과 성행동 변인이 성만족도를 통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준다는 가설적 모형을 검증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추가한 새로운 모형에 대해 검증함으로써, 한 모형안에서 이들의 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권석만, 김지훈(2000). 이상심리학 시리즈: 제15권. 성기능 장애. 서울: 학지사.

김영희(1999).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에 관련된 이론적 모형. 한국생활과학회지, 5(2), 53-72.

김요완(2000). 부부 의사소통 유형과 성 지식 수준의 성 만족도와와의 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김임영(2002). 남편과 아내의 가치관이 신혼기 부부의 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문혜숙(1993). 부부적응과 성적 적응에 따른 부부관계 유형연구: 도시 중산층 기혼남녀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서선영(2001). 결혼초기 부부관계에서 남편과 아내가 지각하는 사랑과 성.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윤가현(1990). 성심리학. 서울: 성원사.

이영실(1989). 도시부인의 부부갈등 제 요인과 성생활 불만족 정도. 박사학위논문. 송실대학교.

이인숙, 문정순(2000). 기혼여성들의 성지식, 성태도, 성생활 만족. 한국보건간호학회지, 14(2), 396-414.

이효재(1986). 가족과 사회. 서울: 경문사.

장순복, 강희선, 김숙남(1998). 기혼여성의 성만족. 대한간호학회지, 28(1), 201-209.

정현숙, 최연실, 유계숙(1998). 결혼학 개론. 서울: 상명대학교 출판부.

마쓰미네 히사미(1995). 여성만을 위한 의학책(박상일, 이홍철 역.). 서울: 도서출판 심지.

Kaplan, H. (1990). 새로운 성치료(이근후, 성금영, 박영숙 역.). 서울: 하나의학사

Apt, C. (1996, March). *Outcome research on the treatment of female sexual disorders*. Paper presented at the 21st annu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Sex Therapy and Research, Miami, FL.

Apt, C., Hurlbert, D. F., Pierce, A. P., & White, C. L. (1996). Relationship satisfaction, sexual characteristics and the psychosocial well-being of women. *The Canadian Journal of Human Sexuality*, 5(3), 195-210.

Bell, R. B. & Bell, P. L. (1972). Sexual satisfaction among married women. *Medical Aspects of*

- Human Sexuality*, 6, 136-144.
- Bell, R. B. (1979). *Marriage and family interaction*(3rd ed.). New York: The Dorsey Press.
- Bentler, P. M., & Bonett, D. G. (1980). Significance tests and goodness-of-fit in the analysis of covariance structures. *Psychological Bulletin*, 88, 588-606.
- Blumstein, P., & Schwartz, P. (1983). *American couples*. New York: Morrow.
- Buss, D. M. (1984). Toward a psychology of person-environment (PE) correl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 361-377.
- Byers, E. S., & Demmons, S. (1999). Sexual satisfaction and sexual self-disclosure within dating relationships. *The Journal of Sex Research*, 36(2), 180-189.
- Call, V., Susan, S., & Pepper, S. (1995). The incidence and frequency of marital sex in a national samp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3), 639-651.
- Catania, J. A. (1986). *Help-seeking: An avenue for adult sexual develop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
- Cox, F. D. (1990). *Human intimacy: the family and its meaning*(5th ed.). St Paul, N. Y., L.A., San Francisco: West Publishing Company.
- Cupach, W. R., & Comstock, J. (1990). Satisfaction with sexual communication in marriage: Links to sexual satisfaction and dyadic adjustment.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 7, 179-186.
- Cupach, W. R., & Metts, S. (1991). *Sexuality and communication in close relationships*. In K. McKinney & S. Sprecher (Eds.), *Sexuality in close relationships*.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Darling, C. A., Davidson, J. K., & Jennings, D. A. (1991). The female sexual response revisited: Understanding the multi orgasmic experience in women. *Archives of Sexual Behavior*, 20(6), 527-540.
- Darling, C. A., Davidson, J. K., & Cox, R. P. (1991). Female sexual response and the timing of partner orgasm. *Journal of Sex and Marital Therapy*, 17(1), 3-21.
- Deeks, A. A., & McCabe, M. P. (2001). Sexual function and the menopausal woman: The importance of age and partner's sexual functioning. *The Journal of Sex Research*, 38, 219-225.
- Derlega, V. J., & Grzelak, J. (1979). *Appropriateness of self-disclosure*. In G. Chelune (Ed.), *Self-disclosure: Origins, patterns, and implications of openness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San Francisco: Jossey-Bass.
- Derogatis, R. L., & Melisaratos, N. (1979). The DSFI: a multidimensional measure of sexual functioning. *Journal of Sex and Marital therapy*, 5(3), 244-281.
- Derogatis, L. R. (1980). Psychological assessment of psychosexual functioning. *Psychiatric Clinics of North America*, 3(1), 58-71.
- Donnelly, D. (1993). Sexually inactive marriages. *The Journal of Sex Research*, 30, 171-179.
- Ferroni, P., & Taffee, J. (1997). Women's emotional wellbeing: The importance of communicating sexual needs. *Journal of Sexual and Marital Therapy*, 12, 127-138.
- Fraley, F. H., & Davis, S. A. (1980). Personality and sexual satisfaction in marriage. *Journal of Sex & Marital Therapy*, 6(1), 56-62.
- Frank, D. L., Downard, E., & Lang, A. R. (1986). Androgyny, sexuality and women. *Journal of Psychosocial Nursing Mental Health Service*, 24(7), 10-17.
- Gordon, S., & Snyder, C. W. (1986). *Personal issues in human sexuality*. Newton, MA: Allyn & Bacon.
- Greenblat, C. S. (1983). The salience of sexuality in

- the early years of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289-299.
- Hatfield, E., Greenberger, Yraupmann, J., & Lamhart, P. (1982). Equity and sexual satisfaction in recently married couples. *The Journal of Sex Research*, 18, 18-32.
- Hill, C. A., & Preston, L. K. (1996).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experience of sexual motivation: Theory and measurement of dispositional sexual motives. *Journal of Sex Research*, 33, 27-45.
- Hite S. (1976). *The Hite Report*.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 Hudson, W. W., & Murphy, G. J. (1990). *Sexual attitude scale*. Walmyr Publishing Co.
- Hunt, M. (1974). *Sexual behavior in the seventies*. Chicago: Playboy Press.
- Hurlbert, D. F. (1993). A comparative study using orgasm consistency training in the treatment of women reporting hypoactive sexual desire. *Journal of Sex and Marital Therapy*, 19, 41-55.
- Hurlbert, D. F., Apt, C., & Rabehi, S. M. (1993). Key variables to understanding female sexual satisfaction: An examination of women in non distressed marriages. *Journal of Sex and Marital Therapy*, 12(2), 134-165.
- Hurlbert, K. F., & Apt, C. (1994, October). *Understanding the female sexual desire response*. Paper presented at the semiannual meeting of the Louisiana Gynecological Association, Tulane University, New Orleans, LA.
- Hurlbert, D. F., Apt, C., Hurlbert, M. K., & Pierce, A. P. (2000). Sexual compatibility and the sexual desire-motivation in females with hypoactive sexual desire disorder. *Behavior Modification*, 24, 325-347
- James, W. H. (1981). The honeymoon effect on marital coitus. *The Journal of Sex Research*, 17, 114-123.
- Kaplan, H. (1979). *Disorders of sexual desire and other concepts and techniques in sex therapy*. New York: Brunner/Mazel.
- Kelley, G. F. (1994). *Sexuality today: The human perspective(4th ed.)*. Guilford, CT: The Dushkin Publishing Group.
- Kinsey, A. C. (1953). *Sexual Behavior in the Human Female*. Philadelphia: W. B. Saunders Co.
- Landis, P. H. (1975). *Making the most of marriage*. New Jersey: Prentice-Hall.
- Lawrance, K., & Byers, E. S. (1995). Sexual satisfaction in long-term heterosexual relationships: The interpersonal exchange model of sexual satisfaction. *Personal Relationships*, 2, 267-286.
- Lief, H. I. (1980). Comments on current thinking on the orgasm experience. *Medical Aspects of Human Sexuality*, 14(7), 55.
- Lloyd, M. A., & Weiten, W. (1997). *Psychology applied to modern life(5th ed.)*. Pacific Grace: Broods/Cole Pub. Company.
- Marokoff, P., & Gilliland, R. (1993). Stress, sexual functioning,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Sex Research*, 30, 43-53.
- Maruyama, G. M. (1998). *Basi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
- Masters W., & Johnson, V. (1966). *Human sexual response*. Boston: Little, Brown.
- Masters W., & Johnson, V. (1970). *Human sexual inadequacy*. Boston: Little, Brown.
- Masters, W. H., Johnson V. E., & Kolodny, R. C. (1985). *Human Sexuality(2nd ed.)*. Boston: Little Brown.
- McCoy, N. L. (1998). Methodological problems in the study of sexuality and the menopause. *Maturitas*, 29, 51-60.
- McGahuey, C. A., Gelenberg, A. J., Laukes C. A., Moreno, F. A., & Delgado, P. L. (2000). The Arizona Sexual Experience Scale(ASEX): Reliability and validity. *Journal of Sex and*

- Marital Therapy*, 26, 25-40.
- McLaren, A. (1990). *A history of contraception: From antiquity to the present*. Oxford, England: Basil Blackwell.
- Mecloski, J. C. (1976). How to make the most of body image therapy. *Nursing*, 76, 68-72.
- Mehrabian, A. (1989). Marital choice and compatibility as a function of trait similarity-dissimilarity. *Psychological Reports*, 65, 1202.
- Perlman, S. D., & Abramson, P. R. (1981). *Sexual satisfaction in married and cohabiting individuals*. In K. Kelley & D. Byrne(Eds.). *Exploring human sexualit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Petersen, J., Kretchmer, A., Nellis, B., Lever, J., & Hertz, R. (1983, January). The Playboy readers sex survey, part I. *Playboy*, 108, 241-250.
- Pietropinto, A., & Simmenauer J. (1977). *Beyond the male myth. What women want to know about men's sexuality. A National Survey*. New York: Times Books.
- Rosenzweig, J. M., & Dailey, D. M. (1989). Dyadic adjustment/ sexual satisfaction in women and men as a function of psychological sex role self-perception. *Journal of Sex and Marital Therapy*, 15(1), 42-56.
- Schumm, W. R., Paff-Bergen, L. A. Hatch, R. C., Obiorah, F. C., Copeland, J. E., Meens, L. D., & Bugighis, M. A. (1986). Concurr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of the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 381-388.
- Snyder, D. B. (1979).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 813-823.
- Stack, S., & Gundlach, J. (1992). Divorce and sex. *American Sexual Behavior*, 21, 359-367
- Tiefer L. (2000). The 'consensus' conference on female sexual dysfunction: Conflicts of interest and hidden agendas. *The Journal of Sex Marital Therapy*, 27(2), 232.
- Vaign, C., Susan, S., & Pepper, S. (1995). The incidence and frequency of marital sex in a national samp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3), 639-649.
- Wallin, P., & Clark, A. (1963). A study of orgasm as a condition of women's enjoyment of coitus on the meddle years of marriage. *Human Biology*, 35, 131-139.
- Waterman, C. K., & Chiauuzzi, E. J. (1982). The role of orgasm in male and female sexual enjoyment. *Journal of Sex Research*, 18(2), 146-159.
- Whipple, B. (2002). Women's sexual pleasure and satisfaction: A new view of female sexual function. *Female Patient*, 27, 44-47.
- William, W. M., & Barnes. M. L. (1988). Love within life. In R. Sternberg & M. Barnes(Eds.). *The psychology of lov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Young, M., Denny, G., Young, T., & Luquis, R. (2000). Sexual satisfaction among married women. *American Journal of Health Studies*, 16, 43-84.
- Zhou, M. (1993). A survey of sexual states of married, healthy, reproductive age women. *The Journal of Personal & Human Sexuality*, 6(2), 15-28.

(2002년 12월 30일 접수, 2003년 6월 5일 채택)